

## 스리랑카, 디폴트 이후 경기회복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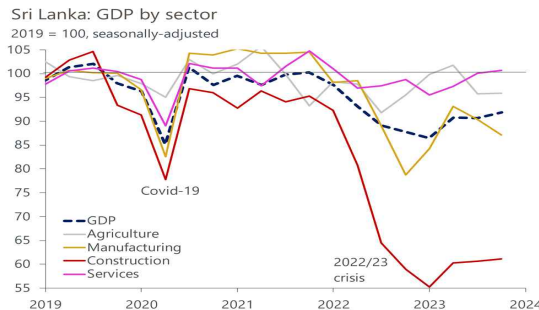
- 2024년 3월 21일, 스리랑카 정부와 IMF가 4개년 구제금융 프로그램(Extended Fund Facility, EFF)의 2차 검토에 대한 실무자급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2억 5,400만 루피(약 3억 3,700만 달러)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 스리랑카는 지난 2022년 5월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며 이듬해 3월 총 22억 8,600만 루피(약 29억 달러)를 승인받았음.
  - 스리랑카의 경제위기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광 수입 및 해외노동자 송금액 급감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정부의 무리한 국채 발행 및 포퓰리즘 정책 △러·우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함.
  - 이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2022년 7월 새로 출범한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hinghe) 정부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2023년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IMF로부터 5억 800만 루피(약 6억 6천만 달러)를 지급받았음.
  - IMF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물가안정, 세수 확보, 외환보유고 회복, 대외채무 재조정 등을 제시함.
- 디폴트 돌입 전후로 역성장을 지속하던 스리랑카는 2023년 하반기부터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부채재조정, 외환보유고 등 주요 경제 지표 전반에서 회복세를 보임.
  - GDP 성장률은 7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되어 2023년 3분기 1.6%, 4분기 4.5%를 기록
    - 서비스업 규모(GDP의 59.9%)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과 건설 부문의 회복세는 부진하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각각 56.0(제조업, '24.2.), 52.9(건설업, '24.1.)를 기록하며 2년여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상하여 2022년 9월 73.7%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NCPI)을 2024년 2월 5.1%까지 안정화함.<sup>1)</sup>
    - 중앙은행은 2023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50bps(5.0% → 15.5%) 인상했으며, 이후 물가안정 추세에 따라 8.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 중국, 파리클럽(인도 포함)을 비롯한 채권국들과 110억 달러에 대한 부채재조정을 완료했으며,<sup>2)</sup> 부가가치세(8%→18%), 법인세(14~24%→30%), 전기요금 등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대
    - 2023년 1~9월 기준, 정부세입이 전년동기대비 150% 확대

1) 최근의 상승세는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인상(15%→18%)에 기인. 수도권물가상승률(Colombo CPI)은 2024년 1월과 2월 각각 6.4%, 5.9%를 기록한 후 3월 0.9%로 하락

2) Reuters (2024. 2. 7.). "Sri Lanka targets debt restructuring framework in first 6 months of 2024 - President." 파리클럽은 공적채무 조정 및 협상을 위한 채권국 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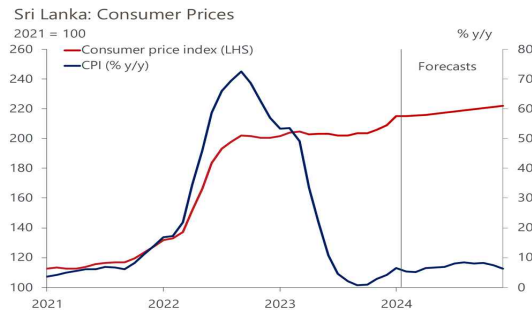
- 2021년 말 1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던 외환보유고는 2024년 2월 기준 약 45억 달러(2.9개월치 수입액 수준)까지 회복함.
- o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했던 해외노동자 송금액이 2023년에 코로나19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했으며 1/10 수준으로 감소한 관광객 수가 반등하면서 관광 수입이 20억 달러를 상회

그림 1. 스리랑카 GDP 및 산업별 추이



자료: Oxford Economics/Haver Analy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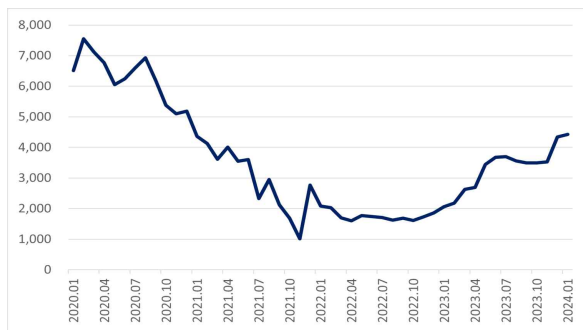
그림 2.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Oxford Economics/Haver Analytics.

그림 3. 외환보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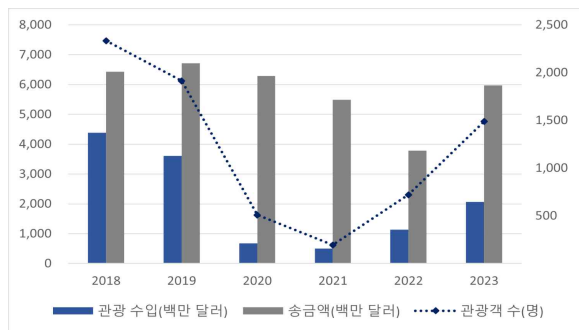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24. 4. 2.).

그림 4. 송금액 및 관광업 추이

(단위: 백만 달러(좌), 명(우))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Monthly Economic Indicators.

-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으로 당분간 스리랑카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관광업과 제조업<sup>3)</sup>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재정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한 소비 및 투자 회복세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스리랑카 정부는 상반기 내 민간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부채재조정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재산세 도입 등을 통한 세수 증대 △공공부문 개혁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소 △관광업 및 송금액 의존도 완화 등의 중장기적 과제를 앞두고 있음.
- 2024년 하반기 예정된 대선과 총선 결과는 경제회복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o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생활비와 세금, 실업률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존재함.

윤지현 전문연구원

3) 외환보유고 위기로 시행된 3,2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